

여성불감증 · 오르가즘 장애

유 희 현 · 유희현 산부인과 원장

35세의 가정 주부인 L여인. 요즈음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 진다. 대학 때 커플로 만나 3년 간 뜨겁게 연애를 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어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신혼 때의 잠자리를 생각하면 짜릿함과 흥분. 정말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설레던 때가 불과 5년 전...

지금은 L여인도 잠자리가 귀찮고, 그렇게 근사하고 멋지던 남편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 남편 역시 한 달에 1번 내지 2번, 그것도 의무적이고 재미없어 한다.

부부간에 관계가 이렇다보니 차츰 부부간의 대화도 적어지고 관심도 멀어지고 애정까지 자꾸 식어가는 듯해 초조함마저 느끼게 된다.

그 원인이 언제부터인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큰 아이를 3.8kg인 남자로 출산한 후부터 잠자리가 소홀해 진 듯 했다.

물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아이가 생기고 육아에 지치는-이 생긴 후부터는 신혼 때보다야 물론 횡수도 줄어들고 관심도 적어졌지만 남편 역시 예전보다 직장 일이 늘고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술을 자주 하곤 하는 달라진 모습이 부인으로서의 심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 때보단 못해도 요즘도 재미있게 지낸다거나, 오히려 신혼 때 몰랐던 오르가즘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며 호들갑들이니 L부인은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남편과 술자리를 마련하고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다. 뜻밖에도 남편은 자신에 대한 그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부터 질이 예전 같지 않게 헐겁고, 조이는 느낌도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L부인에게 뒤통수를 세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달혀진 여성의 몸의 문, 마음의 문을,
부드러운 터치, 달콤한 밀어로
오르가즘의 스위치를 눌러라

물론 L부인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본인도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껴오긴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된 남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부끄러움과 함께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도 생기고 동시에 잠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다.

몇 번을 망설이며 이곳 저곳을 알아보다가 결국 여성 성 기능 병원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질 검사를 해 보니 분만으로 인한 질 손상, 즉 질 근육의 이완으로 질이 많이 변형되어 커져 있었고 질 수축력도 말어 아니게 떨어져 있었으며, 질벽까지 밀려 나와 있었다.

증상이 이렇다보니 본인은 아무런 자극, 또는 흥미도 없는 상태로 부부관계가 멀어졌을테고 남편의 고충도 이해가 갔다.

오즈음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출산과 잦은 유산, 마스터베이션, 성 테크닉의 무지 등으로 인해 질 근육이 박력을 잃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이다.

이 여성들의 경우 수축력 미약 등으로 남편과의 성 관계가 원만할 수 없게 되어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있다. 불감증은 정신적인 면과 기질적인 면, 두 가지로 크게 나

눌 수 있다.

그러나 불감증에 걸렸다고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를 찾으려고만 말고 기질적인 면, 즉 여성 성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

여성은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불감증은 남성의 책임도 크다 하겠다.

섹스는 남녀의 커뮤니케이션이며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르가즘을 얻으려면 서로의 협조, 애무 등 사랑의 묘약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성은 악기, 남성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비유하면 어떨까!

여성의 성기능 장애를 악기의 고장에 비유한다면,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과 실천으로 곧 다시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르가즘 장애

여성 성 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불감증. 성 관계를 가져도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오르가즘 장애는 심리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이 있는데, 과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성을 죄악시하는 집안에서 성장해 쾌감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 쾌감

불감증은, 과거에는 남성의 조루가 그랬듯이
정신과 영역에 속했으나
요즘들어 기질적인 원인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과거 불감증은 남성의 조루가 그랬듯이 정신과 영역에 속했으나 요즘 들어 기질적인 원인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질적인 원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사는 정상인데 남성이 조루이거나 발기 불능이면 여성은 당연히 성적 쾌감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마스터즈와 존슨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흥분은 흥분기-고원기-절정기-이완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남자가 흥분기나 고원기에서 사정을 하면 여성은 절정기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반면 여성의 기질적 원인으로 앞서 살폈듯이 질근육 손상으로 인해 자극을 받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성적 쾌감은 클리토리스와 질구에서 4~5cm 안에 있는데 이른바 G스팟이라는 곳에서 느끼게 되는데 질 속이 손상되면 음경에 의한 G스팟의 자극이 불가능해진다.

질 근육 손상은 앞서도 말했듯이 주로 분만에 의해 초래되며 잦은 자위행위나 유산도 원인이 된다.

이 같은 손상은 자각증상으로도 감지되는데, 관계 시 조이는 느낌이 적거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 성욕이 생기지 않으며 목욕할 때 물이 질 속으로 들어

가는 느낌 등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손가락을 넣어 내부를 만져보는 내진 검사로도 알 수 있으며, 근전도 검사결과 수축력이 50% 미만일 경우도 근육 손상으로 볼 수 있다. 질 근육 손상이 심하면 봉합수술을 받아야 한다.

입구를 좁히는 속칭 '이쁜이수술'로는 근치가 안되므로 질 근육 자체를 복원시키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축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운동요법을 권할 수 있다. 항문을 조였다 찢다 하는 키썰운동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먼저 전문의에게 상담해 보고 운동요법과 수술 중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클리토리스가 표피로 과도하게 덮여있을 때에도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다.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음경에 해당하는데 귀두가 표피에 덮여있듯 클리토리스도 표피에 덮여 있다. 길게 늘어지거나 비대한 경우에도 성기증 장애를 일으킨다.

소음순이 길게 되면 관계 시 음순이 질 속으로 말려 들어가며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길어진 소음순은 음핵을 덮거나 반복적인 성 관계로 더욱 길어지며 관계를 방해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77